

‘5·18 진상 규명’ 대선 이슈 부상

대선주자들 “다음 정부서 발포명령자·헬기사격 등 규명”

광주시, 진상규명 TF 꾸려 주요 대선 공약 의제 삼기로

3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완의 진실로 남아있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자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이 19대 대선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관례기사 3·4면〉

유력 대선 주자들이 다음 정부에서 최초 발포 명령자 등 80년 5월 광주의 진상규명을 밝히겠다고 약속하고 나섰다. 야권도 일제히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에서 5·18 진상규명을 대선 후보의 주요 대선 공약 의제로 삼아 미완의 진실을 찾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광주·전남언론포럼 초청 토론회에서 “아직

도 5·18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차기 민주정부는 광주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전일빌딩에서 당시 헬기소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이야기는 아직도 우리가 광주항쟁에 대해 밝혀내지 못한 진실이 남아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들어설 제3기 민주정부는 광주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고, 책임을 묻고 제대로 보상하고 광주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도 “발포 명령자를 찾는 것은 다음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5·18은 해결 안됐다
진실 밝혀 책임 묻고
광주정신 계승·발전”

그는 전날 광주 전일빌딩을 찾은 자리에서 “3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결국은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철저히 현장을 조사하고 발포 명령자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또 “자위권이 목적이 아닌 진압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런 사실을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아권에서도 5·18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치권도 진상규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실의 문



안철수

“전일빌딩 헬기 사격
자위권 아닌 진압 목적
발포 명령자 찾아야”

이 열렸다”며 “국방부는 5·18 희생자 유가족에 사죄하고, 특히 최초의 발포명령자가 누구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3일 “정부는 무자비한 대량살상이 가능한 헬기 총격에 대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도 5·18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을 꾸리기로 했다. 한시기구로 운영될 TF는 5·18 재단, 5·18기록관, 5월단체와 함께 협의·협력에 진실 찾기에 나설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그림같은 담양 죽녹원 靄靄 광주·전남지역에 최고 15cm의 눈이 내린 23일 담양군 죽녹원과 주변 가옥에 흰 눈이 수북이 쌓여 그림같은 겨울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안희정 “지역특별회계 등 지방 자율권 확대”

광주일보 인터뷰서 밝혀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역발전 정책과 관련, “지역발전특별회계를 비롯해 지역개발계정을 지방에 주려한다”고 밝혔다.

〈인터뷰 전문 5면〉

안 지사는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광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자체가 투자해서 망하면 스스로 책임도 져야 한다”며 “자치분권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소외받았다고 하는 지역발



를 생각하는 것이 순서다”며 “개방형 공동경선은 정당정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농식품부, 설 명절 전 AI 살처분 보상금 50% 지급

설(28일)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들의 경영 및 생계안정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 일부를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설 명절 전 피해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50%까지 선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3일 현재 살처분 보상금 소요 추정액은 797농가 2600억 원(국비 2080억 원, 지방비 520억 원)이다. 이 가

운데 정부는 현재까지 국비 626억 원 집행이 완료됐으며, 설 전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농가 안내 및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선지급 시에도 방역 조치 위한 사항에 대한 감액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도 설 이전 피해 농가에 보상금 지급과 함께 시·군별로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연향뉴스

알립니다

광주일보 창사 65주년·호남예술제 62주년 기념

정명화·손열음·신지아 명품 트리오 광주 공연

(Music from PyeongChang)



첼리스트 정명화



피아니스트 손열음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3월 28일 광주문예회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클래식 연주자들이 한 무대에 섭니다.

광주일보는 첼리스트 정명화, 피아니스트 손열음,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로 구성된 트리오 ‘Music from PyeongChang’ 초청 공연을 개최합니다. 광주일보 창사 65주년과 호남예술제 62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음악회는 좀처럼 한 무대에서 볼 수 없는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앙상블 연주가 인상적인 공연입니다.

이번 무대에 서는 첼리스트 정명화는 설명이 필요 없는 국내 클래식 음악

계의 거장으로 최근에는 대만국제음악제 공동예술감독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14회 차이콥스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 가고 있는 손열음과 2012년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3위 입상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신지아가 호흡을 맞춰 멋진 음악을 선사합니다.

트리오는 이번 음악회에서 드보르작의 ‘피아노 트리오 4번 E단조 작품번호 90 돌키’, 코다이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듀오 작품번호 7’ 등을 들려 줄 예정입니다.

클래식 애호가들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티켓 오픈 : 1월 25일 낮 12시)

- 일시 : 2017년 3월 28(화) 오후 7시30분
-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주최 : 광주일보사, 아시아문화
- 제작 : WCN
- 티켓 : R석 77,000원, S석 66,000원, A석 33,000원
- 예매 : 티켓마루 ■ 문의 : 062-220-0541

光州日報社

남해화학, 대리점 110곳 일방 해지 ▶6면

新 湖南誌-섬의 왕국 전라도 ▶18면

KIA 이흥구 34번 최형우에 양보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50-YEAR
Ginseng Research

Sulwhasoo



피부 자생력과 방어력을 키우는 인삼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다

설화수 자음생크림

천천히 변화를 겪는 피부는 어느 순간 크게 힘을 잃습니다
피부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전하는 설화수 자음생크림
인삼 꽃의 응축된 힘으로 방어력을 강화해 피부 손상 예방에 도움을 주고 인삼 뿌리의 강력한 효능 성분으로
피부의 자생력을 높여줍니다. 더욱 강화된 인삼결정체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세요

· 1966년 설화수 브랜드의 모태인 ABC인삼크림이 탄생되었으며, 이후로 50년간 인삼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유명화장품이나 이모세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료 요금부담)